

2023. 11. 20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2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 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

공간정보담당관	서미연	02-2133-2830
공간정보기획팀장	이봉주	02-2133-2832
정보공개담당관	김순희	02-2133-5698
기록관리팀장	이세진	02-2133-5692

정보공개담당관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5쪽

## 서울시, 디지털트윈 활용한 증강현실 전시 체험 서비스 시범운영

- 서울기록문화관에 '위치 기반 증강현실' 구현...스마트폰·스마트안경 활용해 위치 따라 다양한 전시·관람 체험 제공
- 증강현실 이용해 이동 경로·전시 안내, 육조거리 재현, 서울광장의 과거와 현재, 옛 시장실 등 다양한 전시 체험
- '24년 1월까지 시범운영 후, 만족도·편의성 등 파악...이용수 많은 서비스,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 편의 증진 기대

서울시가 21일(화)부터 디지털트윈<sup>1)</sup> 'S-Map<sup>2)</sup>'과 영상기반 위치 확인 기술 'VPS<sup>3)</sup>'를 활용한 「서울기록문화관 증강현실 전시 체험 서비스」를 시범운영 한다.

- '서울기록문화관 증강현실 체험 서비스'는 현장 전시와 가상 전시의 장점을 결합해 관람객의 접근성과 흥미를 높이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으로 진행되었다.
- '위치 기반 증강현실 서비스'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가상 전시를 더욱 실감 나게 보여주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유형 중 하나(XR, 가상 융합기술)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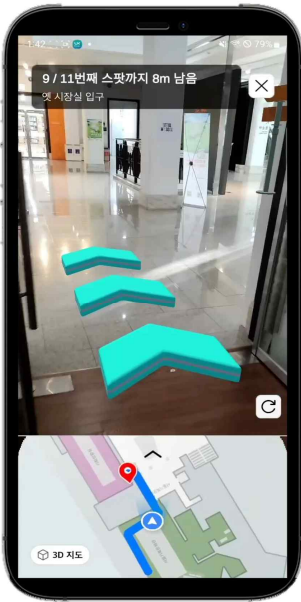
1)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,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

2) 서울시 전역을 3차원 가상현실로 구축한 서울시 대표 3차원 지도

3)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과 서버에 저장된 3차원 공간정보(지도)를 비교하여 사용자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 (Visual Positioning System)

- 서비스 시범운영 중 시민들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안경을 통해 서울도서관(구 시청사) 3층에 위치한 ‘서울기록문화관’과 ‘옛 시장실’을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다.
  - ‘서울기록문화관’은 서울의 변화상과 수도 서울만의 다채로운 모습을 기록 전시로 선보이는 공간으로 디지털 기반 전시플랫폼으로 운영된다.
  - ‘옛 시장실’은 시장 집무실·접견실·기획상황실을 재현한 공간으로 역대 서울시장이 사용했던 사무집기와 가구 등을 그대로 연출하여 당시의 분위기와 서울시장들의 활동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.
  
- ‘서울기록문화관 증강현실 전시 체험 서비스’는 ▲길 안내 ▲해설 안내 (AR 해설사) ▲증강현실 육조거리 ▲시대를 뛰어넘는 창문 ▲서울시장과 기념 촬영 ▲역대 시장 한눈에 보기 등 총 6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.
  - 첫째, ‘길 안내’ 기능은 관람객의 전시 관람을 돕는 서비스이다. 서울기록문화관에서 관람객이 보고 싶은 전시 구역을 검색하면 증강현실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에 이동 경로를 안내한다.
  - 둘째, ‘해설 안내’ 기능은 서울기록문화관의 전시 구역에서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이다. 전시 공간 앞에 위치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전시 내용과 관람 방법을 설명한다.
  - 셋째, ‘증강현실 육조거리’는 광화문광장 주변에 있던 조선시대 육조거리를 재현한 가상 전시로 서울기록문화관 내 정보관에서 볼 수 있다. 또한 이곳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가상의 육조거리를 직접 걸어보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.
  - 넷째, ‘시대를 뛰어넘는 창문’은 서울기록문화관의 창문을 통해 현재의 서울광장을 내려다보며 증강현실로 2002년 월드컵 붉은악마 응원 장면 등 과거의 광장을 함께 감상하는 경험을 선사한다.

- 다섯째, ‘서울시장과 기념 촬영’은 옛 시장실 재현 공간에서 시민들이 가상의 오세훈 시장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.
  - 여섯째, ‘역대 시장 한눈에 보기’는 옛 시장실 내 설치된 현·역대 서울시장 정보 그래픽 전시 영역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추면, 서울시장의 업적이나 관련 기사, 동영상 등을 증강현실로 보여준다.
- ‘서울기록문화관 증강현실 전시 체험 서비스’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‘LX AR 네비게이션 앱’을 검색 후 설치하면 이용이 가능하다. 또한 서울기록문화관 현장에 설치된 QR코드를 통해 내려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.
  - 이번 시범서비스는 2024년 1월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되며, 시민들의 만족도 및 사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  -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“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위치 기반 증강현실 기술은 그동안 가상공간에서만 경험하던 메타버스 서비스를 현실 세계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”이라며, “이번 증강현실 전시 체험 시범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의 기록 전시물을 새롭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

전시관별 길안내 화면(저시력자 모드)

해설안내(AR도슨트) 시작화면



증강현실 육조거리(스마트안경)

시대를 뛰어넘는 창문



서울시장과 기념촬영

역대 시장 한 눈에 보기

**붙임2**    **서울기록문화관 소개**

- 위      처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, 서울도서관 3층
- 운영일시: 매주 화~일, 09시~18시(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)
- 전시구성: 서울기록문화관 및 옛 시장실
- 전시내용

○ 서울기록문화관

① 본 전시 : 서울만의 특별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기록으로 아카이빙하여 전시

구분	시민을 기록하다	시정을 기록하다	서울키워드	서울파노라마
전시 내용	기록문화의 또다른 주체인 시민들의 사진 및 현장 수집기록 표출	일상의 변화를 가져다 준 시정책 관련 연대별 시청각 기록 표출	서울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키워드로 묶어, 관련 기록 탐색 서비스	서울의 발전상을 스토리텔링하는 대표 사진 및 관련문서 연출
현장 사진				

② 기획전시 : 관람객이 직접 주제를 선택하여, 서울시 분야별 기록콘텐츠 관람

구분	인트로	정보관	영상관
전시 내용	기획전시실의 콘셉트 및 관람방법, 전시 주제 소개	관람객 기호에 맞게 주제를 선택하여 시청각 기록 관람	대형 스크린을 통해 몰입감 있게 영상 관람
현장 사진			

○ 옛 시장실 재현공간

구분	기획상황실	접견실	집무실
전시 내용	연대별 주요 시정문서를 임팩트 있게 라이트박스 전시	내·외빈 선물(행정박물) 및 각계인사 접견사진 전시	역대시장 스냅사진 프로필 및 서울 시정 연표 전시
현장 사진			